

“지금은 힘을 내고, 힘을 모으고, 힘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농장주 여러분, 농장가족, 우리 돈공(豚公)들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하면서 안부를 전합니다.

안 기 홍
(양돈컨설턴트)

저는 우리 양돈을 사랑하고, 양돈인들 덕분에 생활하고 있는 양돈경영 컨설턴트로서,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양돈인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조언을 하고자 합니다.

양 돈 경영자 여러분!

돼지고기는 우리 국민의 제2주식으로서 자리잡아 가고 있는 만큼,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결코 무너질 수도 무너져서도 안되는 우리 농장을 ‘함께 힘을 내고, 힘을 모으고, 힘을 키워서 희망찬 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선, 생존전략이 필요합니다.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여 자금수지를 맞추고, 사료한톨, 물한방울이라도 아끼는 절약을 실천하며, 더 이상의 보호막이 없어진 만큼 자립하고, 내탓이라는 의식개혁이 절실한 때입니다.

둘째, 정도(正道) 경영을 하여야 합니다. 최근 일부농장에서의 ‘후보돈구입중단’ ‘약품대폭감축’ ‘모돈감축’ ‘비육돈투매’ 등 비정상적인 행위는 내농장, 우리 양돈산업의 안정과 회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양돈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월 사료비의 5% 수준인 후보돈구입과 고품질의 규격돈 생산은 필수조건입니다.

셋째, 기본관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모돈체형 조절, 주간관리, 인공수정, 임신진단, 소독 및 차단방역, 정상적인 사료급여 등의 기본관리가 모여서 농장의 생산성과 경영성적이 향상됩니

다. 다시한번 기본관리를 점검하고, 자돈1두 1두에 정성을 다합시다.

넷째, 정확한 기록경영입니다. 우리나라가 망한(?) 이유가 정확한 기록과 정보공유의 부실에 있다고 하며, 앞으로 경영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경영기록이 필수적입니다. 매월말 사육두수와 성적기록은 기본이며, 매일 발생하는 현장의 번식기록은 물론 사료와 판매기록을 통해 경영분석까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함께하고 공부하는 양돈인이 되어야 합니다. 현대사회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함께, 몇 농장씩 모여서 의논하고, 공부하고, 공동구매하고, 전문가의 의견과 지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경영마인드를 키워야 합니다. 조직화, 협동화를 통한 고품질의 브랜드전략만이 살길입니다.

이상 다섯가지의 실천을 통해 나(농장주, 종업원)와 농장의 상품가치와 경쟁력을 키워서 우리 양돈산업의 안정과 발전을 이룩합시다.

외람되고, 어려운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양돈 사랑의 정성으로 이해해 주시리라 믿으며, 봄철 양돈경기의 회복을 다함께 기원합니다.

1998. 1월초